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모두 발언

2023. 6. 30.(금)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2023년도의 첫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금융교육협의회 위원님들과
금융교육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금융교육 플랫폼의 필요성

이제 코로나19 방역지침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지난 3년간의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면보다 비대면 수업에 더 익숙해졌고,
일방향식 전달 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양방향식 학습이
교육에 더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교육을 접하는 매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콘텐츠가 종이책을 대체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해졌고,
교육내용 역시 단순한 금융이론의 설명이 아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존 금융교육으로,

돈의 가치보다는 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을 교육하더라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보다 친숙한 매체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교육 플랫폼이 금융교육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금융교육 플랫폼 운영방안

현재 공공부문의 온라인 금융교육 창구는 금감원의 e-금융교육센터로 통합 운영중이나,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플랫폼 활용도나 이용자 수 측면에서 실적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청년층은 금융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그 효과도 크지만

유튜브나 대형 검색포털에 익숙하다보니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검색하며, 내용의 정확도나 충실성 보다는 재미 위주로 금융 콘텐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e-금융교육센터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 우선,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14개 유관기관 외에도
여타 금융교육 사이트 및 온라인 채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e-금융교육센터 한 곳에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청년들의 관심사항인 금융관련 공모전·경진대회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협회 또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금융교육도
e-금융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방향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사항과 선호를 반영하여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보급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콘텐츠 협의회를 구성하여
콘텐츠 개발의 기초가 되는 이용현황 및 관심분야 등을 공유하고,
중복되는 콘텐츠 제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콘텐츠 수가 많아지더라도
콘텐츠 인증제도를 통해 교육목적에 충실한
양질의 콘텐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방식도 단순한 동영상 강의 시청이 아닌

‘연극’,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금융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이용자 관심분야와 편의사항들이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e-금융교육센터가 대표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별도의 금융교육 홍보채널을 개설하는 등
e-금융교육센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일선 학교나 대학 등 강의 및 학습자료에
e-금융교육센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큰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콘텐츠 공유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금융교육 알리기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써먹지 못하는 많은 교육보다
적게 적용되는 교육이 차라리 낫다”고 하였습니다.

흔히들 요즘 시대를 가리켜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금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양질의 금융교육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e-금융교육센터가 금융교육 및 관련 정보를 집중하여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